



☞ 중기청, 벤처투자 자원 1340억원 조성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올 하반기 동원창업투자, 한국기술투자 등 10개 창업투자조합에 497억원을 출자해 모두 1340억원의 벤처투자자원을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방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정부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높여 조합 결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출자 등을 포함하면 연말까지 4000억원 정도의 창업투자조합이 결성돼 중소벤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에서 10월말 2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4000억원 내외의 창업투자조합이 결성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기부 내년 R&D 부문에 1조2214억 투입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기부(장관 박호균)는 내년도 R&D 부문에 올해(1조1473억원)보다 약 7400억원(6.5%) 늘어난 1조2214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건축 예산으로 비 R&D 부문은 지난해(1190억원)보다 9.8% 줄어든 1073억원에 그쳤으며, 이에따라 과기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1조3287억원으로 올해(1조2663억원)보다 4.9% 늘어날 게 됐다. 사업별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비가 205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대신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은 547억원으로 올해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과기부는 내년에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신규 투지비를 550억원으로 잡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진흥사업 확대를 위해선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30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DIST) 설립(10억원) 등 신규 사업이 추가돼 올해(292억)보다 대폭 늘어난 598억원이 편성됐다.

☞ 전경련, 대기업과 벤처기업 만남의 장 마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산업협력재단은 오는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기업 및 은행, 벤처캐피털과 중소벤처기업간의 투자 제휴 및 여신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기업과 벤처기업 만남의 장에는 LG상사·삼성테스코·대우인터내셔널·산업은행·하나은행·KTB네트워크·산은캐피탈·한빛창투·삼일회계법인 등이 참석한다.

LG상사 벤처팀과 대우인터내셔널 해외사업팀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 및 제품을 발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삼성테스코 구매팀은 판로개척을 돕는다.

또 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 KTB네트워크, 산은캐피탈, 한빛창투는 투자 및 여신상담을 지원하며 삼일회계법인은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업경영 및 재무에 대해 무료 상담해 줄 예정이다.

☞ 중기청, 해외 유명규격 인증 정보 인터넷서 종합 제공

중소기업청은 해외 유명규격 인증과 관련된 정보 및 인증 획득 절차 등을 인터넷상에서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해외 유명 규격 인증 정보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유럽 규격인 CE 등 30만종의 각종 해외 규격 자료 제공 ▲중국 강제인증(CCC) 등 주요 해외 강제 규격의 인증 제도 설명 ▲정부지원사업 대상 해외 규격 및 지원 내용, 인증 획득 절차 안내 ▲사업 참여 지원 신청 및 접수, 결과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향후 수출 대상국의 안전 및 환경 등에 대한 최근 관련 규격을 확보,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CCC 제도와 같이 시급한 규격 인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인증 절차 및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 소개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